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경산시연합회,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 200만원 기탁

- 경산시연합회(회장 윤태욱), 11월 26일 (재)경산시장학회를 방문, 장학기금 200만원을 기탁했음
- 이날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탁된 장학금은 경산 대추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개최한 제5회 경산대추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만들어진 것임
- 윤태욱 회장은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취지로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 인재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 농정 소식

○ 경기도, 내년부터 농민들의 농기계종합보험료 절반 지원

-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비와 시·군비 등 총 6억원을 농민들의 농기계종합보험료로 지원한다고 11월 26일 밝혀. 현재 농기계종합보험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원하면 농가 부담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돼 농기계종합보험료로 15만원을 내는 도내 농가는 내년부터 7만~8만원만 부담하면 됨
-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 등 12종임
-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단, 음주·과속·신호 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 대상임
- 경기도는 내년도 7천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만 5천대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임. 보험 신청 희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음

○ 서류조작해 보조금 타낸 농민에 징역 8개월 집유

-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경민)는 11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5)와 상당구(옛 청원군) 모 영농법인 대표 B씨(5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냉동건축공사 운영자 C씨(56)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음
- 법원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편취한 보조금 규모와 방법에 비춰보면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 A씨는 2009년 9월 괴산군에 161.49㎡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면서 시공업자인 C씨와 짜고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2,640만원을 내지 않고 순수 보조금만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음. B씨는 2011년 옛 청원군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음
-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전체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자부담해야 하지만 이들은 C씨로부터 미리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나중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냈음

○ 암 사망률 농촌이 도시의 1.4배...격차 갈수록 심화

- 11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5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13.2명보다 낮았음
- 그런데 전국 227개 시군구를 규모에 따라 대도시·시·군지역을 나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양상이었음
- '암 또는 신생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대도시 지역은 2008년 10만명당 17.97명에서 2011년 16.88명으로 낮아진 반면 군 지역은 2008년 22.67명에서 2011년 23.00명으로 오히려 높아졌음.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군 지역의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대도시보다 1.36배 가량 높은 것임
-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해, 대도시와 시지역의 연령표준화 감염병 사망률이 10만명당 8.48명, 9.59명인 데 반해 군 지역은 대도시의 2배에 가까운 16.44명이었음. 대사증후군,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도 모두 군 지역이 대도시나 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도시 지역이 더 높았음. 암 또는 신생물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1인당 47,027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반면 군 지역의 의료비 지출은 37,744원에 그쳤음. 질병·사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의료 제공의 반비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건강 불평등'과 '의료이용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군 지역이 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건강 수준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의료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